

환경·문화·복지 인프라(infra) 구축으로 21세기 경쟁력 있는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선진국 수준의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대구광역시를 찾아 개선과정을 들어본다.



수질보전과장 구 영 수

###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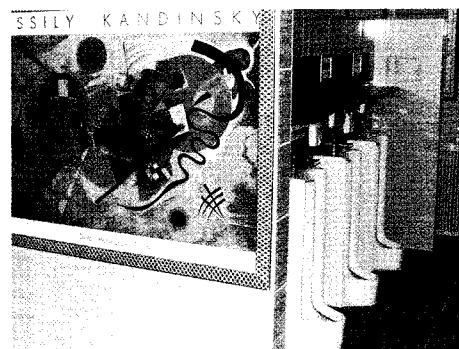
공중화장실의 청결도는 그 국가 및 도시의 종합적인 문화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을 찾는 대다수의 관광객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불편증 하나가 공중화장실 이용불편을 들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우리 대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에게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친숙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키 위해 시장님(대구시장:문희갑)의 지시로 99년 11월부터 화장실 문화개선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 활동내용

공중화장실 정비대상 선정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총 694개소 중에서 372개소를 주요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진공중화장실 견학(구·군담당자등 30명), 전국 우수화장실 사진 및 관련용품 전시회 개최(3회), 화장실 문화개선 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화장실 문화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하였고 「공중화장실 일제정비 관계관회의 개최」 등으로 체계적인 계획과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보완지침」을 시달하여



▲ 대구 망우공원의 공중화장실

미래지향적인 화장실 문화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추진방향

대구는 알려진 바와 같이 분지로 더운곳이었으나 지속적인 녹화사업으로 여름철 평균 기온을 1.2°C 낮추었으며, 화장실의 경우도 자연과의 조화 및 환경친화적인 화장실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태와 기능을 고려한 적절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경제적인 소재와 재료를 선택하여 화장실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과도한 예산이 들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탈피한

환경·문화·복지 인프라(infra) 구축으로 21세기 경쟁력 있는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선진국 수준의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대구광역시를 찾아 개선과정을 들어본다.

장애인, 노약자등 누구나 마음놓고 찾을 수 있는 친숙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수질관리과에서 총괄하고 관리주체별로 대상화장실을 지정하였습니다. 시장, 상가, 주유소 등은 경제산업국에서 운동장, 관광지, 휴양시설 등은 문화체육국 구·군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은 환경녹지국, 역, 터미널, 도로변 휴게소 등은 교통국 등으로 하여 부서별 관리대상 화장실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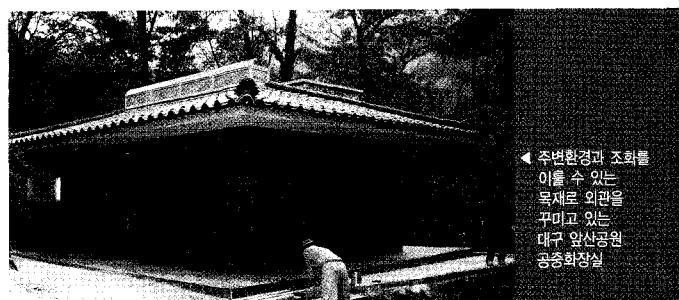
### NGO와 협력

월드컵문화시민운동 대구광역시협의회 및 대구사랑시민운동본부등 관내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한줄서기 운동등 화장실문화 정착을 위한 대시민 홍보활동을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민간관리 화장실에 대한 개방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분야별 화장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으뜸화장실」로 선정된 화장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 장후계획

화장실 관련 인터넷 대구광역시 환경녹지국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삼성전자와 함께 화장실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올해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화장실 개선 후 사후관리가 중요하여 민간협의회와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필요한 비용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여 「아름다운 도시, 품위있는 대구」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목재로 외관을  
꾸미고 있는  
대구 앞산공원  
공중화장실